

#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지도자를 찾아가 공익 활동을 추진하도록  
도움을 구하면 성사될 수 있을까? (왕호응 씀)

이것은 어떤 남자가 성(省) 지도자를 찾아가 공익 활동의 추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예측한 사례이다.

계묘년(癸卯年) 계해월(癸亥月) 경오일(庚午日) 계미시(癸未時) (순공(旬空): 술해(戌亥))에,  
천택리(天澤履)가 천화동인(天火同人)으로 변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癸亥月 庚午日 癸未時

八卦

天澤履(艮土宮) 之 天火同人(離火宮)

應 兄 壬 戌 空	蛇 兄 壬 戌 空	伏 官 丙 寅
天喜蓋	天喜蓋	亡地
孫 壬 申	勾 孫 壬 申	世 伏 財 丙 子
帳花劫馬	帳花劫馬	閏花馬災
父 壬 午	朱 父 壬 午	伏 兄 丙 戌 空
害鬼將	害鬼將	天喜蓋
世 財 己 亥 空	青 兄 丁 丑	伏 孫 丙 申
閏地花劫	馬月乙天	帳花劫馬
兄 己 丑	玄 官 丁 卯	應 伏 父 丙 午
馬月乙天	將花	害鬼將
官 己 卯	白 父 丁 巳	伏 兄 丙 辰
將花	馬亡	花鞍馬月

歸魂卦

空亡: 戌亥

卦身: 兄辰

世身: 三爻

공익 활동은 프로젝트 추진 및 홍보에 속하니, 부모(父母)를 용신(用神)으로 삼고, 관귀(官鬼)와 응효(應爻)를 겸하여 판단한다. 부모가 양현(兩現)하여, 월파(月破)한 부모 사화(巳火)를 용신으로 삼는다. 월이 극(剋)하고 일(日)은 방부(幫扶)하여 쇠왕(衰旺)이 서로 비슷하다. 응효는 지도자가 되는데, 관귀에 치(值)했으니 더욱 확실하며, 발동(發動)하여 부모를 생하니, 지도자가 공익 활동의 홍보를 촉진하도록 도와줄 것을 허락하게 된다.

간효(間爻) 축토(丑土)가 발동하여 공망(空亡)으로 화(化)하였으니, 틀림없이 중간에 선을 대어 다리를 놓아주는 중재인

이 있겠으나, 힘을 쓰는 것이 제자리에 이르지 못해 그 역량이 부족하다. 응효가 간효 축토를 극하니, 지도자가 중재인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다.

부모 사화가 월파되었으니, 이번 달에는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없다.

뒤에 지도자가 베이징으로 회의를 가러 출장을 가는 바람에 당월에는 성사되지 못했다. 뒤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쟁취한 끝에, 최종적으로 홍보 추진을 승낙받았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找领导帮助推动公益活动能成吗？（王虎应写）

这是某男预测找省领导帮助推动公益活动的案例。于癸卯年癸亥月庚午日癸未时（旬空：戌亥），得天泽履之天火同人。

螣蛇	兄弟戌土'
勾陈 妻财子水	子孙申金'世
朱雀	父母午火'
青龙	兄弟丑土× 妻财亥水
玄武	官鬼卯木○应 兄弟丑土
白虎	父母巳火'

以公益活动属于项目推广，父母为用神，兼看官鬼应爻。父母两现，以月破父母巳火为用神。月克日帮扶，衰旺相当，应爻为领导，值官鬼更是，发动生父母，领导会答应帮忙促进公益活动的推广。

间爻丑土发动化空亡，一定有中间人牵线搭桥，但出力不到位，力度不够。应爻克间爻丑土，领导不给面子。

父母巳火月破，本月启动不了项目。

后因为领导到北京开会，当月没有进行成。后通过多方争取，最后答应推广。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 제9장 낙양(洛陽)으로 이주하여 안락와(安樂窩)에 천지를 담다

황우(皇祐) 원년(元年), 맑고 온화한 봄날의 기운 속에 중주(中州)의 문풍(文風)은 한창 전성기를 이루었고, 이강(伊江)과 낙수(洛水)가 흐르는 땅의 기운은 아득히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소옹(邵雍)은 3년 동안의 부모님 상례(喪禮)를 무사히 마치자, 세속의 마음은 차츰 가라앉고 도를 향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 무렵 그의 학문은 이미 크게 성취되었고 심성은 통달하여 원융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성(共城)의 한 구석에 오래 머물다 보니, 산수는 비록 고요했으나 판도가 결국 좁아 만고의 가슴속 기상을 다 담아내기 어려웠고, 천하의 이름난 명사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갈고 닦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넓은 문학적 견문을 받아들이고 학문을 깊이 갈고 닦아 대도를 검증하며, 중주 문맥의 핵심 땅에 장구하게 뿌리를 내리고자 소옹은 마침내 온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바로 천하의 중심이자 문맥이 한데 모이는 옛 도읍, 낙양이었다.

낙양은 천 년 동안 황제가 도읍했던 곳으로, 주(周)·한(漢)·위(魏)·진(晉)·수(隋)·당(唐) 나라를 거치며 쌓인 문맥의 깊이가 천하에서 으뜸이었다. 산천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낙수가 성을 관통하며 흐르니, 풍광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기운은 깊고 웅장하여 예로부터 성현들이 오가고 유학과 도학이 한데 모이는 곳이었다. 공성 산야의 맑고 외로운 고요함과 비교하면, 낙양은 명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학풍이 개방적이었다. 조정의 문신들과 재야의 큰 유학자들이 대부분 이곳에 모여 살았으므로, 도를 논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안목을 넓히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소옹은 대도가 비록 본 마음에 있으나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성현들과 함께 탁마해야 함을 깊이 알고 있었다. 이에 소문(蘇門) 백원(百源)의 옛 집을 떠나 가솔을 데리고 낙양으로 향하며, 반평생 동안 편안히 머물며 도를 전할 세월을 시작했다.

처음 낙양에 들어왔을 때 소옹은 여전히 가난함을 스스로 지켰다. 집을 살 만한 넉넉한 재산도 없었고 의지할 만한 권세기도 없었기에, 처음에는 좁은 골목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방은 낮고 담장은 소박했으며 가구는 몇 개 되지 않아 사방의 벽이 쓸쓸할 지경이었다. 반평생의 유량과 수년 동안의 맑은 수행을 거치는 동안, 그는 이미 배움을 입고 누추한 방에서 검소하게 하루를 보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에 시내의 변화함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호사스러운 대저택을 탐내지도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할 때 집이 넓고 뜰이 깊으며 땅값이 비싼 곳만 구하지만, 소옹은 오직 거처가 청정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히 두고 경서와 도를 연구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넉넉히 만족했다. 비록 거처는 보잘것없었으나 그는 변함없이 아침이면 향을 피우고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면 정좌하여 이치를 추론했으니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누추한 방안에는 늘 책 향기가 감돌았고 도의 기운이 오랫동안 머물렀다.

소옹은 품행이 고결하고 학식이 초연하여 비록 좁은 골목에 살았으나 온전한 대유학자의 풍골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가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며 도를 깨닫는데 마음을 쏟는 품성은 이미 낙양의 수많은 명사의 눈과 마음에 깊은 공경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 현달한 이들은 그의 흥중에 천지가 담겨 있고 도가 고금에 관통해 있음을 깊이 알았다. 그리하여 세상을 건질 만한 기이한 재능을 아끼고 그의 누추한 거처를 안타깝게 여겨, 저마다 성심껏 도와 좋은 터를 찾아주었다. 몇 차례의 주선 끝에 사람들은 소옹이 낙양의 천진교(天津橋) 남쪽이자 천공사(天宮寺) 서쪽에 있는 한 저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와주었다. 이곳은 변화한 저잣거리의 시끄러움과 멀었고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조정의 번잡한 땅과도 떨어져 있었으며, 낙수와 가까우면서도 세속의 분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산을 의지하고 물을 가벼이 대하니 청정하고 한가로우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법도가 있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어울려 몸을 닦고 학문을 다스리며 조용히 앉아 도를 깨닫기에 더없이 좋은 거처였다.

새집은 비록 호화로운 궁궐은 아니었으나 격조가 청아하고 맑으며 아늑했다. 뜰 앞에서는 흘러가는 구름과 저녁바람을 바라볼 수 있었고, 문밖에서는 낙수가 잔잔히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안에 있으면 사계절의 풍광을 눈 밑에 거두어 들일 수 있었고, 천지의 맑은 기운을 가슴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소옹은 이곳의 청초하고 고요하며 세상과 얽히지 않는 기운을 깊이 사랑했다. 이번 생에 편안히 머물며 도를 향한 마음이 안정을 얻은 경우에 감사하며, 담담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거처에 직접 우아한 이름을 지어 붙였으니 바로 안락와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스로 “안락선생”이라 일컬었다.

이른바 안락이란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나 높은 지위와 두터운 녹봉의 편안함이 아니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도에 얽매임이 없으며, 몸에 번거로움이 없고 성품에 들뜸과 가라앉음이 없는 본 마음의 안락이었다. 소옹은 평생 외물이 풍족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면이 평안하기만을 바랐으며, 가난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았고 외로움을 유한으로 삼지 않았다. 누추한 방 안에서 본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고, 평탄한 세월 속에서 대도의 청명함을 지켜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서 즐거움을 구하며 명리와 물질, 소리를 쫓아다니기에 종일토록 두려워하고 편안함을 얻지 못하지만, 소옹은 홀로 안에서 편안함을 구하며 본 마음의 맑고 깨끗함을 굳게 지켰다. 그리하여 좁은 골목에 처해서도 자기를 온전히 지키며 조용히 여유로웠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유유자적했다.

이때부터 낙양의 안락와에 편안히 머물며, 소옹은 조정의 다툼과 저잣거리의 화려함, 세속의 응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학문에 침잠하여 도를 깨닫고 몸과 성품을 기르는데 온 마음을 쏟았다. 매일 아침 하늘이 처음 밝아올 때면 책을 펼쳐 읽고 선천(先天)의 수리를 추론하며 천지의 운화와 고금의 치란(治亂)을 다스리는 이치를 정리했다. 낮에 한가할 때면 낙수의 강가를 거닐며 흘러가는 물과 사계절의 바뀌는 것을 관찰하고, 풍물의 변천과 인간 세상의 삶을 살펴 눈앞의 실제 풍경으로 마음속 대도를 검증했다. 어둠이 짙어지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조하며 도를 깨달았으니, 잡념을 씻어내고 본 마음을 침전시켜 낮 동안 생각하고 본 것들을 모조리 융합하여 관통시켰다.

작은 안락와는 마당이 좁고 방이 보잘것없었으나, 그 안에는 천지 건곤(乾坤)과 만고의 대도가 숨어 있었다. 여기에서 소옹은 더는 분주하게 쏘다니거나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마침내 몸과 마음을 정착시켜 공부를 깊이 다질 안정한 거처를 얻게 되었다. 지난날 산하를 널리 겪으며 얻은 세상의 깨달음, 문을 닫고 고생스럽게 읽으며 쌓은 경서의 학식, 스승을 뵈고 도를 깨달아 터득한 선천의 신비로운 기틀이 모두 이 사방 한 칸의 누추한 방 안에서 서서히 다듬어지고 마침내 승화되었다. 안락와는 그 가 몸을 기탁해 살던 거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을 침전시키고 심법을 응축하며 책을 저술하고 도를 전해 인재를 기르던 핵심 도량이었다. 반평생의 표박 끝에 마침내 돌아갈 곳을 얻었고, 만리 길을 걷은 끝에 마침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소옹은 낙양의 안락와 안에서 한 별의 베풀을 지키고 한평생의 담박함을 유지하며, 낙수가 천 년 동안 흘러가는 것을 고요히 바라보았고 세상이 부침하며 변천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았다. 누추한 방에 대도가 숨어 있고 방 한 칸에 건곤을 받아들이니, 이 유유하고 청정한 은거의 세월은 복숭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단에 천고로 전해질 안락하고 은일한 일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훗날 불후의 거작을 저술하고 대도의 문맥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정되고 순수한 수행의 세월을 침전시켜 주었다.

### 第九章 迁居洛城，安乐窝中藏乾坤

皇祐元年，时序清和，中州文风鼎盛，伊洛地气绵长。邵雍三年守孝期满，尘心渐定、道心愈固。彼时他学问已然大成，心性通透圆融，然久居共城一隅，山水虽静，格局终狭，不足以容纳万古胸臆，亦难与天下名士交流切磋。为广纳文思、深耕治学、印证大道，亦为长久扎根中州文脉核心之地，邵雍决意举家南迁，迁居天下之中、文脉荟萃的洛阳古城。

洛阳为千年帝都，历经周汉魏晋隋唐，文脉积淀冠绝天下。山川环抱、洛水穿城，风物温润、气韵沉雄，自古便是圣贤往来、儒道汇聚之地。相较于共城山野的清幽孤寂，洛阳名士云集、学风开放，朝堂文臣、山林大儒多聚于此，最宜论道研学、开阔眼界。邵雍深知，大道虽在本心，亦需人间烟火、圣贤相与砥砺，遂辞别苏门百源旧居，携家眷奔赴洛城，开启半生安居传道的岁月。

初入洛阳，邵雍依旧清贫自持，无厚资置宅、无权贵依托，初居陋巷小院，屋舍低矮、墙垣朴素，陈设寥寥、四壁萧然。历经半生迁徙、数载清修，他早已习惯布衣陋室、简约度日，不羨市井繁华、不慕豪门华宅。世人迁居皆求屋阔庭深、地段显贵，唯独邵雍只求居所清静、可安身心、可研经道便足矣。纵使居所简陋，他依旧晨起焚香读书，暮时静坐推演，日日不辍，陋室之中，依旧书香萦绕、道气长存。邵雍品行高洁、学识超然，虽身居陋巷，却难掩一身大儒风骨。其安贫乐道、潜心悟道的品性，早已被洛阳一众名士看在眼里、敬在心中。一众贤达深知其胸怀天地、道贯古今，惜其旷世奇才、怜其居所简陋，纷纷诚心相助，为其寻觅佳处。几经辗转，众人相助邵雍迁居洛阳天津桥南、天宫寺西一处宅院。此地不临闹市喧嚣，不处朝堂繁地，近洛水而远纷扰，依山傍水、清静闲适，进退有度、动静相宜，是修身治学、静坐悟道的绝佳居所。

新居虽非琼楼华屋，却格局清雅、清净安稳，庭前可观流云晚风，门外可听洛水潺潺。置身其中，可收四时风物于眼底，可纳天地清气于胸中。邵雍深爱此处清幽静定、与世无扰的气韵，感念此生安居、道心安稳的境遇，遂淡然自适，为居所亲题雅号，名曰“安乐窝”，自此自号安乐先生。

所谓安乐，非锦衣玉食之乐、高位厚禄之安，而是心无牵绊、道无桎梏、身无纷扰、性无浮沉的本心安乐。邵雍一生不求外物丰盈，只求内心安然，不以清贫为苦，不以寂寥为憾，于陋室之中寻得本心归宿，于平淡岁月守得大道清明。世间之人，多向外求乐，追逐名利声色，故而终日惶惶、不得安宁；邵雍独向内求安，固守本心澄澈，故而身处陋巷亦自在从容、清贫度日亦悠然自得。

自此安居洛城安乐窝，邵雍彻底隔绝朝堂纷争、市井浮华、世俗应酬，一心沉潜治学悟道、修身养性。每日晨起，天光初亮，便开卷读书、推演先天数理，梳理天地运化、古今治乱之理；白日闲暇，漫步洛水之滨，观流水东流、四时更迭，察风物变迁、人世烟火，以实景印证心中大道；暮色沉沉，则闭门静坐、观心悟道，涤荡杂念、沉淀本心，将日间所思所见尽数融会贯通。

小小安乐窝，院窄庭浅、屋简室陋，却藏天地乾坤、万古大道。在这里，邵雍不必奔波跋涉、不必漂泊流离，终于拥有一处安稳居所安顿身心、深耕所学。昔日遍历山河所得的沧桑感悟、闭门苦读积淀的经义学识、拜师悟道勘破的先天玄机，皆在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此方寸陋室中慢慢炼化、逐步升华。安乐窝不仅是他栖身安居的居所，更是他沉淀学问、凝练心法、著书立说、传道育人的核心道场。  
半生漂泊，终得归处；万里行路，终落心安。邵雍于洛阳安乐窝中，守一身布衣、持一世淡泊，静观洛水千年流淌，坐看世间浮沉变迁。陋室藏大道，方寸纳乾坤，这段悠然清静、安守本心的隐居岁月，不仅成就了北宋文坛千古流传的安乐隐逸佳话，更为他日后著成旷世巨著、广传大道文脉，沉淀了最安稳、最纯粹的修行岁月。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 곡율광전(斛律光傳)

곡율광(斛律光)은 자(字)가 명월(明月)이며, 병주(并州) 태원(太原) 출신으로 북제(北齊) 제일의 명장(名將)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장수를 배출한 명문가로, 여러 대에 걸쳐 북쪽 변방을 굳건히 지켰으며, 아버지 곡율금(斛律金)은 사납고 용맹하여 전장을 누비며 북조(北朝)에 이름을 널리 떨쳤다. 곡율광은 가학(家學)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용맹함이 비할 데 없었고, 말 타고 활 쏘는 무예에 정통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군대에 들어가 국경 지대를 누볐다. 그의 성품은 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올곧았고, 말수가 적고 굳센다. 군대를 다스림에는 지극히 엄격하여 상과 벌을 명확히 나누었고, 병사들을 자애롭게 아끼고 보살폈다. 조정에서 받은 포상은 모조리 휘하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삼군(三軍)의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마음을 다해 목숨 바쳐 따랐고, 그의 부대가 향하는 곳마다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북제가 북방에 자리 잡은 이래로 북쪽으로는 돌궐(突厥)을 막아내고 서쪽으로는 북주(北周)에 대항하느라 변방의 전란(戰亂)이 그칠 날이 없었다. 곡율광은 평생을 북쪽 변방과 서쪽 국경을 지키는 데 바쳤으며, 평생 크고 작은 백 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누비며 돌궐의 철기(鐵騎)를 수차례 격파하고 북주의 강병들을 무찔렀으며, 옥벽(玉壁)과 동관(潼關) 등 여러 요새를 굳건히 지켜내어 북제의 반쪽 강토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북주는 그의 위엄 있는 이름에 두려움을 느껴 수년 동안 감히 군대를 일으켜 동쪽으로 진격하지 못했다. 조정과 재야가 모두 그의 군사적 위엄에 외경심을 가졌고, 나라 전체가 그를 국가를 지키는 장성(長城)으로 의지했다. 그의 활 솜씨는 북조에서 으뜸이었는데, 일찍이 연병장에서 말을 달리며 사나운 매를 화살 한 발로 쏘아 떨어뜨리니, 당시 사람들이 그의 무예가 천하무쌍이라 칭송하며 북쪽 나라 전역에 그 위명을 떨쳤다.

그러나 곡율광은 천성이 곧고 바르며 조정에서 아첨하는 짓을 할 줄 몰랐고,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조정 안의 간사한 무리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 북제의 후주(後主)는 암둔하고 나약하여 간사한 재상을 총애하고 부귀영화에 빠져 살았으니 조정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간신들은 곡율광의 공로가 높고 권세가 중함을 시기하여 여러 차례 터무니없는 참소(讒訴)를 올리며 총량(忠良)한 그를 모함했다. 후주는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간사한 말을 가벼이 믿어, 억울하게 곡율광을 죽이고 말았다.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장이 전장의 포화 속에서 쓰러지지 못하고, 끝내 조정의 간사한 무리 손에 목숨을 잃으니 온 나라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다. 곡율광이 죽은 뒤 북제의 변방 수비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나라는 방어막을 잃어버려 불과 수년 만에 북주에 멸망당했다. 사가(史家)들은 "곡율명월이 죽으니, 북제도 망했다"라고 평했다. 그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세상을 덮었고 국난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으니, 평생토록 변방의 땅을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며 온몸으로 북제의 사직을 떠받쳐 북조 병주 무장들의 천고에 빛날 충렬(忠烈)의 기풍을 훌륭히 다져냈다.

#### 斛律光传

斛律光，字明月，并州太原人，北齐第一名将也。其家世将门，累世镇守北疆，父斛律金骁勇善战，知名北朝。光承家学，自幼骁勇绝伦，善骑射，精于弓马，少时便随父从军，驰骋边塞。其性情刚正忠直，寡言坚毅，治军极严，赏罚分明，体恤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士卒，所得赏赐尽数分予麾下将士，是以三军将士皆倾心效死，麾下兵马所向披靡。北齐立足北方，北拒突厥，西抗北周，边疆战事无休。斛律光毕生戍守北疆、西境，一生大小百战，未尝败绩。其驰骋沙场数十年，屡破突厥铁骑，击溃北周劲旅，镇守玉壁、潼关诸险要，屏障北齐半壁江山。北周惮其威名，数年不敢兴兵东进，朝野皆畏其兵威，举国倚为长城。其射术冠绝北朝，曾于校场驰马射隼，一箭落之，时人盛赞其武艺无双，威震北国。

然光秉性刚直，不擅朝堂逢迎，嫉恶如仇，得罪朝中奸佞。北齐后主昏庸孱弱，宠信奸相，耽于享乐，朝政腐败。佞臣嫉其功高权重，屡进谗言，构陷忠良。后主不辨忠奸，轻信谗语，枉杀斛律光。一代名将，未殁于沙场战火，竟亡于朝堂奸佞，举国惜之。斛律光身死之后，北齐边防崩塌，国无屏障，数年之后便为北周所灭。史家有言：“斛律明月死，北齐亡矣。”其忠勇盖世、尽忠殉国，一生成土安民，以一身之力支撑北齐社稷，铸就北朝并州武将千古忠烈之风。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 《신의천진(神醫天真)》 2

량중자(良中子)는 곧 안도 쇼에키(安藤昌益)로, 일본 에도 중기의 지명도 있는 민간 의사와 사상가이다. 평생 의술과 본초(本草)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방을 유람하며 독창적인 학술 이념을 형성했다. 《신의천진》은 그의 핵심 의학 저작으로, 책 전체가 천진원기(天真元氣)를 근본적인 입론으로 삼아 인체와 천지만물이 모두 일원원기(一元元氣)로 화생한다고 보았으며, 음양(陰陽)이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전통적인 완고한 음양오행(五行) 인식을 타파했다.

해당 서책은 특색 있는 진료 체계를 형성했는데, 얼굴 부위의 망진(望診)을 중시하여 얼굴 부위와 오관을 장부(臟腑)에 대응시켜 병소와 병세를 판단했다. 시치(施治) 이념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주장하여, 온몸의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독한 약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추종하지 않았다.

이 저작은 의학 이론과 자연 철학을 깊이 결합하여, 전통 의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융합했으니, 일본 근세 민간 의학 중에서 풍격이 선명하고 사상이 심오한 고전이며, 당시 동아시아 민간 의술과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참고를 제공한다. 연재의 두 번째.

良中子即安藤昌益，是日本江戸中期知名民间医者与思想家，一生钻研医术、本草之学，同时游历四方，形成了独树一帜的学术理念。《神医天真》是其核心医学著作，全书以“天真元气”

为根本立论，认为人体与天地万物皆由一元元气化生，秉持阴阳互性、循环相生的整体观念，打破传统僵化的阴阳五行认知。

该书形成了特色诊疗体系，重视面部望诊，以面部部位、五官对应脏腑来判断病灶与病情。在施治理念上，主张顺应自然规律，以调和周身元气、恢复机体平衡为核心，不推崇猛药强攻。

这部作品将医学理论与自然哲学深度结合，既吸纳传统医理精华，又融入自身独到思考，是日本近世民间医学中风格鲜明、思想深刻的典籍，也为研究当时东亚民间医术与思想文化提供了珍贵参考。连载之二。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9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